

서울시 가계부채의 현황 및 악성화 진단과 대책(Ⅰ)

제윤경

(주)에듀머니
대표

서울시 가계부채의 현황 및 악성화 진단과 대책(I)

	요약	3
I.	서울시 가계부채의 현황	4
II.	소득계층별 가계부채의 악성화 진단	7
III.	부채 악성화의 주요 원인과 금융복지 상담의 역할	14

제윤경

(주)에듀머니
대표

02-775-7670
jykkto@daum.net

가계 빚은 예금취급기관의 기준으로 전국 규모는 약 654조원이고 서울시는 201조원 정도이다. 전국 대비 서울시민의 가계 빚의 규모가 30.8%를 차지한다. 특히 최근 들어 은행권 대출보다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부채가 점차 악성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는 서울시민 903명에게 설문을 실시하고 40여명을 재무 상담한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설문과 상담을 토대로 가계부채의 악성화 정도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함과 동시에 새 출발을 지원할 정책방안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제안하고자 한다. 첫 회의 내용은 악성화 진단에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에는 심층 상담의 세부내용과 극복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58%가 채무 연체 중이고, 대부업 대출의 절반을 저소득층이 이용 중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저소득계층 응답자의 44.7%가 현재 소득의 절반 이상을 현금서비스 결제에 사용하고 있고, 77.8%가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출이 연체 중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58%나 되어 저소득층의 채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신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제2금융권 혹은 대부업 대출 등의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어 채무 상황의 악성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 계층의 58.7%가 3군데 이상의 금융기관 대출을 보유 중, 다중 채무자 10명 중 4명은 채무독촉을 경험

부채를 보유한 서울시민 10명 중 6명 정도가 3군데 이상의 금융기관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중간소득자, 즉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에서 평균치보다 10% 이상 다중 채무자가 많았다. 다중 채무자 10명 중 4명이 채무독촉 경험이 있었고, 조금씩 연체가 시작되면서 소득과 무관하게 채무 악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차원의 부채 악성화 차단 및 채무자의 새 출발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금융복지 상담이 절실

대부업 대출자의 절반이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고 담보 대출자 10명 중 8명이 신용대출을 추가로 일으키는 등 저소득층은 채무 불이행, 중간소득자 이상은 부채 악성화가 진행 중이다. 기존의 서민금융은 지원조건이 까다롭고 대상이 협소하여 계층별 부채 해소의 실효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층별 맞춤형 금융복지 상담을 통하여 자립의지의 동기를 부여하는 대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I. 서울시 가계부채의 현황

전 소득계층이 가계부채의 위험에 노출

신용카드 결제금이 심각하게 소득을 잠식 중

- 신용카드 이용자의 40.8%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결제금으로 지출
- 현금흐름이 카드 결제금으로 인해 적자 구조, 사소한 외부 충격에도 쉽게 고금리 부채에 노출될 위험에 직면
- 저소득층일수록 결제금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
- 소득 400만원 이상 계층도 카드 결제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가 30.7%
- 소득의 1/2 이상을 현금서비스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44.7%

표 1. 신용카드 결제액 위험구간

소득	150만원 미만	150만원~ 250만원	250만원~ 400만원	400만원 이상	전체 평균
위험구간 비율	52.2%	46.4%	41.7%	30.7%	40.8%

- 신용카드 이용자 3명 중 1명이 현금서비스를 이용
- 1년에 1회 이상 현금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률이 36.6%
- 1년에 8회 이상 현금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률이 24.7%

표 2. 현금서비스 이용횟수 현황

횟수	1회	2~3회	4~5회	6~7회	8회 이상
비율	12.9%	36.2%	19.6%	6.6%	24.7%

설문조사 개요

설문 목적	서울시민의 가계 빚 실태 파악 및 악성화 진행수준의 진단
대상 및 응답자 수	20세부터 35세까지 기혼자 혹은 35세 이상 서울시민 대상, 903명 응답
조사기간	2013. 8 ~ 9. 15
주요 내용	대출 이용현황 및 고금리 대출 이용실태 파악, 연체 정보 파악 및 채권추심 경험 유무, 추심 형태 및 피해현황 파악 등

담보대출 이용자의 비율은 48.1%이며, 주로 정규직과 고연령층

- 주로 집과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
 - 주택 담보 대출이 60.5%, 보험 약관 대출이 34.6%
- 담보대출 이용자 2명 중 1명이 정규직 근로자이며, 고령층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상존
 - 담보대출 이용자는 정규직 근로자가 53%, 개인 사업자가 18.7%
 - 소득분포에서 300만원 이상 소득자가 56.2%를 차지
 - 연령별로는 50세 미만이 74.5%, 50대 이상은 25.5%. 고령층의 경우 소득감소가 예상되므로 자산 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채무의 불이행 가능성이 상존

표 3. 담보 대출자 연령 분포도

구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인원	5	145	173	89	22	434
비율	1.1%	33.4%	40%	20.5	5.0%	100.0%

신용대출의 이용비율이 82.1%이며, 생활비 명목의 대출이 다수

- 과거 이용의 경험까지 포함하면 신용대출 이용의 응답률은 95%
- 은행 대출이 57.9%로 절반 이상을 차지
 - 신용대출 이용의 금융회사 비율은 시중은행(57.9%), 카드사(16.6%), 지인(7.2%), 보험사(6.8%), 저축은행(5.5%), 캐피털(4.1%) 순
- 대출 용도는 생활비가 40.6%를 차지
 - 교육비(7.0%), 의료비(2.5%)까지 생활비로 포함하면 신용 대출자의 현금흐름은 만성 적자인 상태

표 4. 신용대출 용도

구분	주거비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	사업자금	기타	합계
건수	405	85	496	30	159	48	1,223
비율	33.1%	7.0%	40.6%	2.5%	13.0%	3.9%	100%

제2금융권 이용자의 비중이 높고 카드사 대출이 절반을 차지

- 조사 대상자의 55.7%가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
- 2건 중 1건은 카드사 대출, 용도는 생활비가 압도적
 - 제2금융권 채무에서 카드사 비중이 51.6%로서 신용카드를 통해 쉽게 대출이 발생
 - 보험사를 통한 대출도 31.7%, 보험 약관 대출과 주택담보의 2차 대출
 - 대출 발생의 원인은 생활비라는 응답률이 74.7%, 주택 마련 자금 용도가 13.3%

표 5. 제2금융권의 대출 목적

구분	주거비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	부채상환	사업자금	기타
건수	118	63	663	29	8	86	38
비율	13.3%	7.1%	74.7%	3.3%	0.9%	9.7%	4.3%

* 2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보유자 포함

II. 소득계층별 가계부채의 악성화 진단

저소득층의 부채 악성화가 심각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계층에서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증가

- 저소득층의 현금흐름은 이미 적자, 소득의 절반이 카드 결제
- 카드대금 결제 후 남은 잔액이 소득의 반이 안 된다는 저소득층 응답자가 52.2%

표 6. 신용카드 결제액 위험구간

소득	150만원 미만	150만원~ 250만원	250만원~ 400만원	400만원 이상	전체 평균
위험구간 비율	52.2%	46.4%	41.7%	30.7%	40.8%

-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 응답자 중 44.7%가 현재 소득의 절반 이상을 현금 서비스 결제에 사용
- 저소득층의 신용카드 결제액이 소득의 2/3를 초과하는 경우가 21.8%로 다른 소득 구간에 비해 3배 이상, 소득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8.8%
- 소득의 1/2 이상을 현금서비스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44.7%
- 현재 연체 여부 응답률도 58.0%로서 10명 중 6명이 연체 중이며, 과거 연체 경험 응답률도 79.0%
- 직업군에서도 소득이 안정적인 정규직에 비해 시간제 아르바이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현재 연체 여부 응답률이 60.7%
- 1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전체 지출 대비 금융비용은 50%, 최소한의 생계 위협 응답자가 66.7%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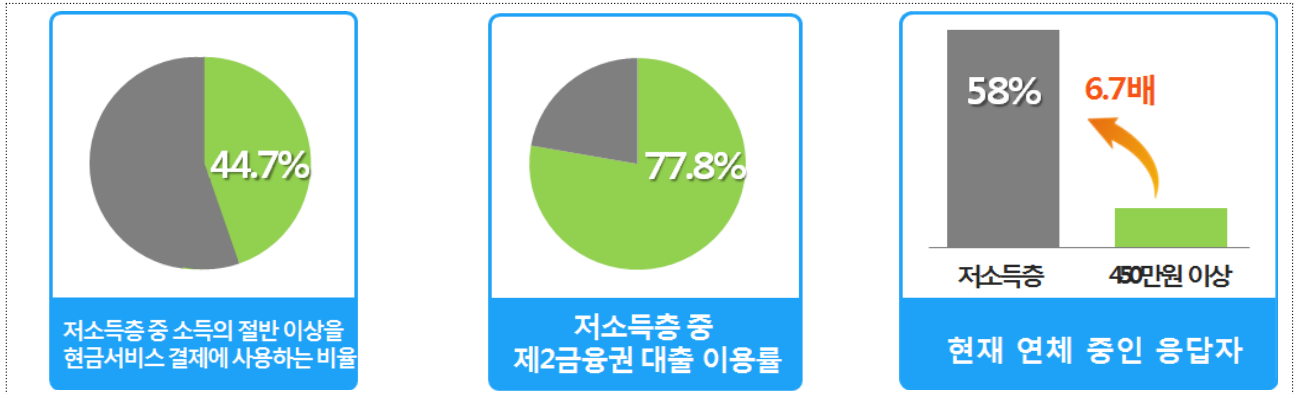


그림 1. 저소득층의 부채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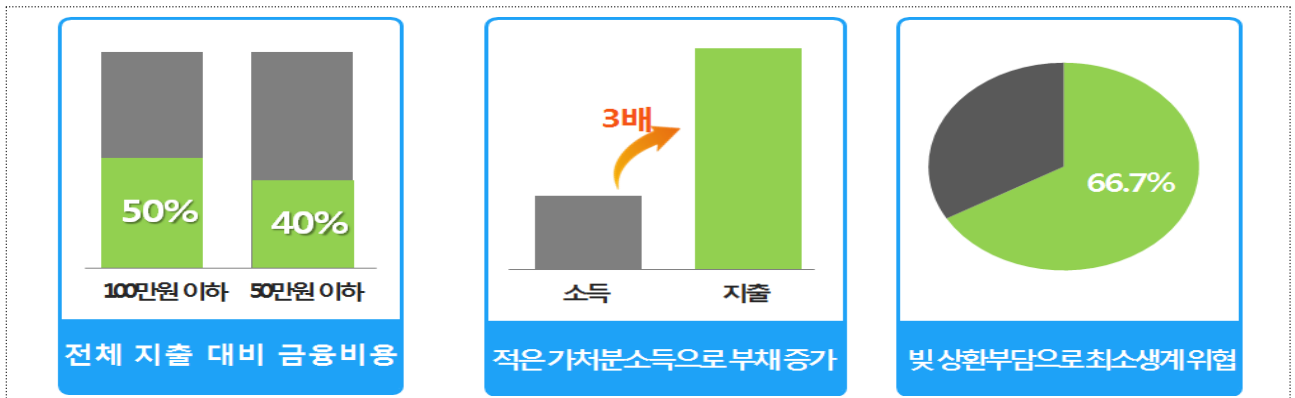


그림 2. 저소득층의 부채 현황 및 위험도

- 악성 부채 이용률에서도 저소득층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우세
- 제2금융권 이상의 대출 이용 응답률이 77.8%
- 파견직(82.4%), 시간제 아르바이트(78.6%) 등의 소득불안 계층에서 제2금융권의 이용률이 상위
- 민간월세 거주자(73.9%), 공공월세 거주자(71.4%) 등 주거불안 계층의 부채 악성화가 심각
- 대부업 이용자 중 50.8%가 150만원 미만, 33.9%가 300만원 미만 소득자

- 카드사,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층은 300만원 미만 소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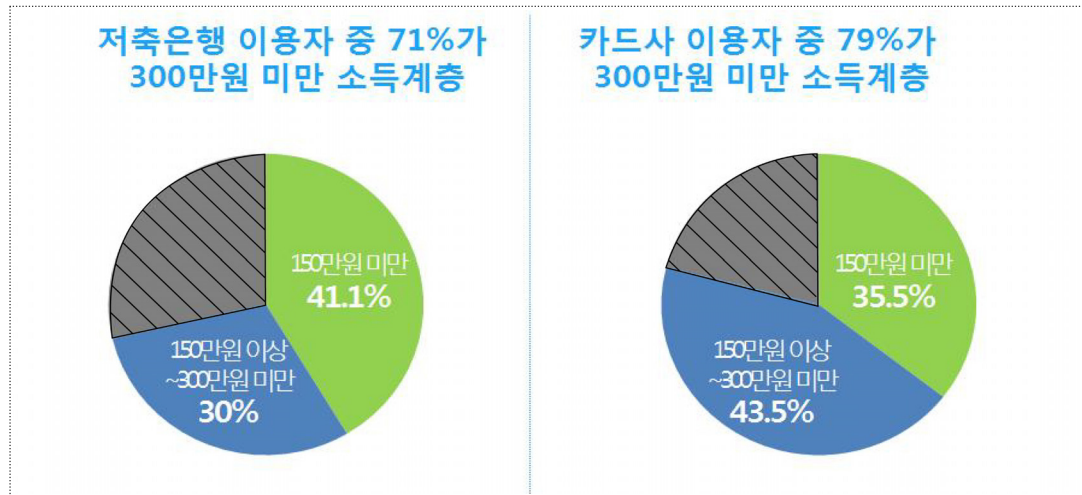


그림 3. 소득별 저축은행, 카드사 이용 현황

전 소득계층의 부채 악성화도 진행 중

생활비, 부채 상환으로 빚이 늘어나는 생계형 대출이 증가

- 담보대출 이용자 10명 중 8명이 신용대출을 추가로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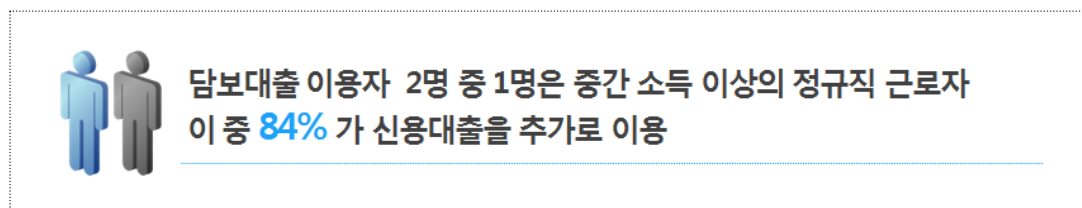


그림 4. 다중 채무자 분석

- 담보대출만 이용한다는 응답률은 16%에 불과
- 담보대출 용도 중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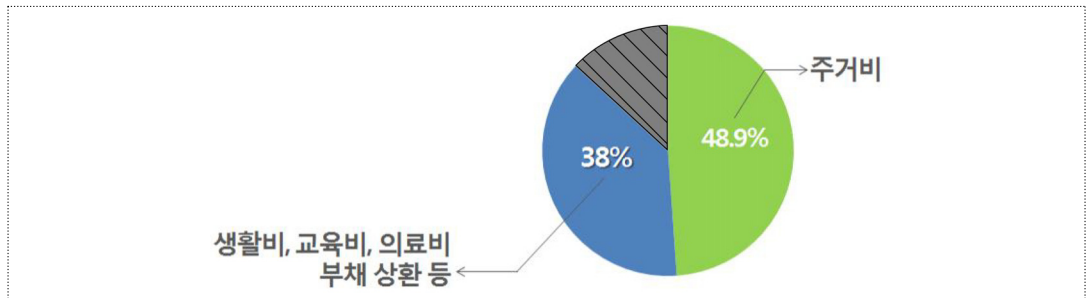


그림 5. 담보대출 이용 용도

- 고금리 대출 이용의 규모가 커서 악성화 진행이 우려
- 금리가 20% 이상인 제2금융권 대출자 503명 중 18.5%가 1억~3억원 이상의 채무를 보유
- 2000만~5000만원 대출 이용자가 24.7%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표 7. 제2금융권 대출 이용 규모

부채규모	10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	5000만원 미만	1억원 미만	2억원 미만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이용자	106	91	124	89	55	26	12
비율	21.1%	18.1%	24.7%	17.7%	10.9%	5.2%	2.4%

- 제2금융권 이용자 중 77%가 다중 채무자
- 신용대출 이용자 4명 중 1명이 타 금융권 대출을 동시에 이용
- 시중은행 신용대출 이용자 589명 중 151명(25.6%)은 타 금융권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이용하고 있어 향후 부채 악성화의 우려가 심각

표 8.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이용자 현황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이용자 현황	인원	비율
시중은행 이용	589	100.0%
시중은행의 신용대출만 이용	438	74.4%
시중은행과 타 금융권 동시 이용	151	25.6%

고금리 대출 이용자가 심각하며, 대부업은 상황이 거의 불가

- 신용대출 이용자 중 20.5%가 고금리 대출만 이용
- 은행 금리와 많게는 10% 이상 차이가 나는 고금리 대출만 이용하는 비중이 20.5%로서, 편의성의 이유도 있으나 주로 신용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

표 9. 신용대출 이용자 현황

신용대출 이용자 현황	인원	비율
신용대출 이용	741	100.0%
시중은행 외 신용대출만 이용	152	20.5%
시중은행 대출 이용	589	79.5%

-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제2금융권 대출자
- 조사 대상자의 55.7%인 503명이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
- 대출 이용자 6명 중 1명이 대부업을 이용
- 전체 응답자 중 대부업 대출의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6.3%, 이 중 현재 이용 중인 응답자는 13.1%
- 대부업 대출 이용자 중 타 금융권 대출을 동시에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90.7%, 대부업 대출만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9.3%에 불과

표 10. 대부업 대출 이용자의 타 금융권 대출 이용 현황

구분	인원	비율
대부업 외 다른 금융권의 대출 없음	11	9.3%
대부업 외 다른 금융권의 대출 있음	107	90.7%
현재 대부업 대출 이용 중	118	100.0%

- 대부업 대출의 이용자 4명 중 1명은 2군데 이상의 대부업체를 이용 중이고 대부업 대출 외 다른 금융권의 대출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부업 대출이 사실 상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해, 혹은 기존의 빚 때문에 현금흐름이 더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악성 부채라는 것을 의미

다중 채무자들의 부채 악성화가 심각

- 소득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다중 채무자는 10명 중 6명
- 3군데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는 58.7%

3군데 이상의 금융기관 대출에서 실제 대출 보유건수는 3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존재. 실제로 신용대출 보유 현황에서는 대출 이용자가 741명이지만 금융기관별 대출건수는 1,018건이고 용도에 대한 질문도 복수응답으로 1,223건이 집계. 이는 실제 대출 보유건수가 훨씬 많을 수 있음을 의미

- 계약직 종사자 중 다중 채무 보유자는 58.1%, 정규직은 60.4%, 개인 사업자는 61.3%

표 11. 응답자의 직업별 인원 대비 다중 채무자 비율

직업	계약직	정규직	개인 사업자
전체	105	434	142
인원	61	262	87
비율	58.1%	60.4%	61.3%

- 소득 450만원 이상 가구에서조차 다중 채무자의 비율이 58%이며, 전체 소득구간에 서 높은 비중을 차지

표 12. 소득별 다중채무 비율

소득	150만원 미만	150만원~ 300만원	300만원~ 450만원	450만원 이상
전체	162	339	252	150
인원	91	182	170	87
비율	56.2%	53.7%	67.5%	58.0%

- 악성 부채 보유자의 상당수가 다중 채무자
- 연간 8회 이상의 현금서비스 이용자 중 다중 채무자의 비율이 86.6%
- 제2금융권 이용자 중 다중 채무자의 비율은 77%
- 대부업 대출 이용자 중 다중 채무자 비율도 70.3%, 2개 이상의 대부업체 대출을 이

용하면서 3군데 이상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다중 채무자 비율이 심각한 수준. 결과적으로 대부업 대출은 상환 불능의 가능성이 상존

저소득계층과 다중 채무자, 대부업 대출자의 연체가 심각

- 신용대출 이용자 5명 중 1명이 현재 연체 중
 - 담보대출 이용자의 연체율 16.8%보다 신용대출 이용자의 연체 비율(21.5%)이 4.7%나 더 높은 상황
- 저소득계층과 고연령층, 고금리 대출일수록 연체율이 심각
 - 150만원 미만 소득자의 현재 연체 여부 응답률은 450만원 이상 소득자의 6.7배 수준
 - 시간제 아르바이트의 현재 연체 여부 응답률은 정규직의 5.8배
 - 60세 이상의 현재 연체 여부 응답률은 40세 이상 45세 미만의 2.5배
 - 민간월세 거주자의 현재 연체 여부 응답률은 자가 거주자의 4.8배
 - 대부업 대출 이용자의 절반이 현재 연체 중인 것으로 조사
 - 연체자 10명 중 8명은 제2금융권의 대출 이용자로 조사

Ⅲ. 부채 악성화의 주요 원인과 금융복지 상담의 역할

부채의 악성화는 과잉신용 공급에서 초래

소득능력에 관계없이 공급되는 고금리 대출이 악성화의 주원인

- 과잉신용은 과잉공급과 밀접하게 연계
 -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이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신용 공급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저소득층의 금융소외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
 - 오히려 주 고객층의 70%가 300만원 미만의 소득자이고 40%가량이 150만원 미만의 소득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저소득층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악성화의 주요 원인
 - 조사 결과 최초의 대출기관이 은행이라는 응답자 비율이 78.3%. 그러나 전체 응답자 중 제2금융권 대출자의 비율이 55.7%이고 다중 채무자가 58.7%라는 것은 은행에서 시작된 빚의 악성화가 심각하다는 점을 의미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인해 부채가 악성화

- 연체에 대한 공포심이 고금리 대출의 추가 발생요인
 - 과거 연체 경험에 대한 응답률이 높을수록 현재 고금리 대출 상품의 보유율도 상승. 150만원 미만 소득자(450만원 이상 소득자 연체율의 2배)가 제2금융권 대출의 77.8%이며, 신용대출 연체자 10명 중 8명이 제2금융권 대출의 이용자로 조사
 - 과거 연체 경험에 대한 응답률이 높을수록 현재 다중 채무자로 조사
- 채권 추심의 경험이 무리한 악성 부채의 발생요인
 - 대출 이용자의 10명 중 4명이 채권 추심을 경험. 채권 추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2%(345명),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1.8%(558명)로 조사
 - 채권 추심 방법의 1/4이 불법 채권의 추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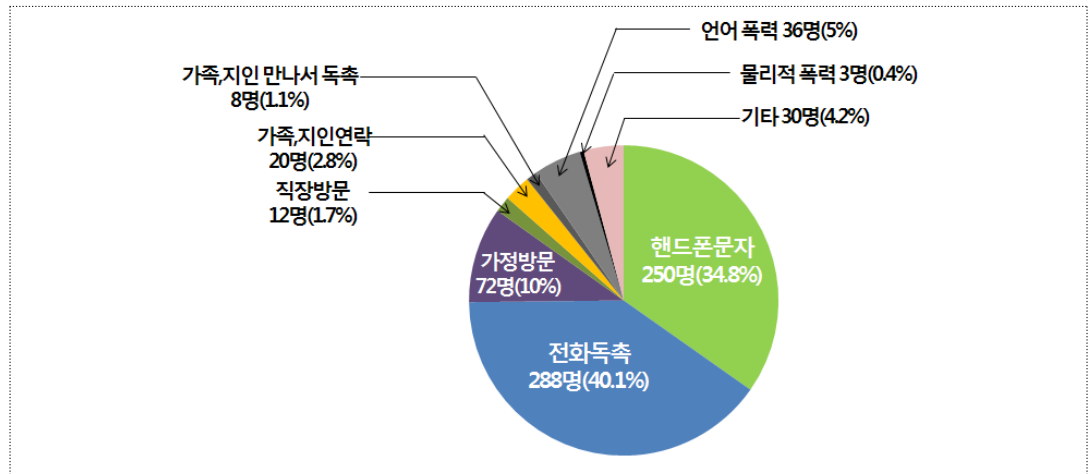


그림 6. 채권 추심 유형(복수응답)

- 채권 추심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4명 중 3명이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호소
- 이러한 채권 추심의 경험과 그 경험에서 비롯된 고통은 채무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더욱 위험한 악성 부채를 추가 발생
- 과거 연체 경험자 중 연체 해결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다른 대출을 받아서 상환했다는 응답이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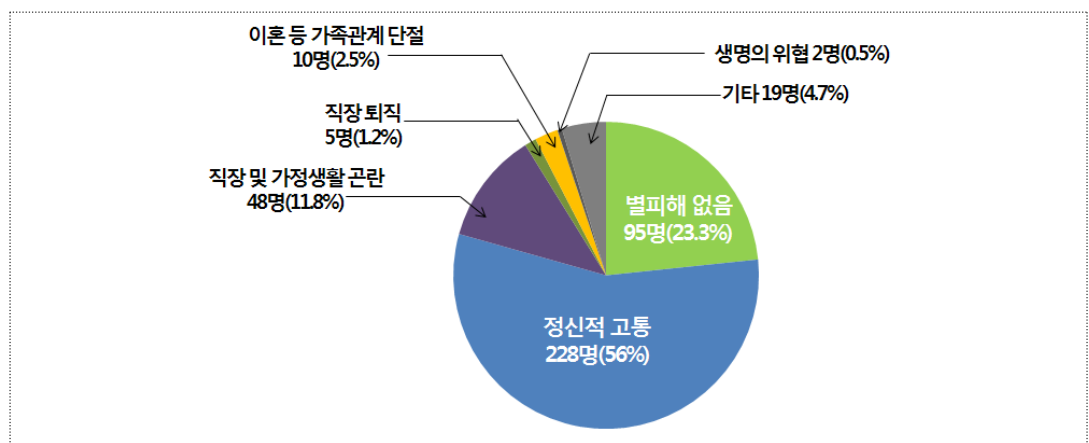


그림 7. 채권추심 피해 유형

정부의 제도가 취약하여 사회적 채무의 조정 지원이 한계

서민금융상품의 대상이 협소하여 실효성이 부족

- 서민금융상품의 지원조건이 저소득층이면서 연체 경험이 거의 없고 저신용자이므로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
- 특히 바퀴드림론의 경우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
- 악성부채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이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해 신규 대출을 반복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재무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6개월 동안 꾸준히 상환했다는 조건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높은 장벽
- 대부업 이용자 중 햇살론 이용자 7%, 미소금융 이용자 2.3%의 조사 결과, 서민금융상품이 부채 악성화의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시사

표 13. 서민정책금융상품

구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퀴드림론
재원 (조성목표)	휴면예금·기부금 2.2조원 조성	정보·서민금융회사 보증재원 2조원 조성 (95% 보증)	은행 자체재원	국민행복기금 자체재원 (100% 보증지원)
대출 대상	·7~10등급 ·기초수급자, 상위계층	·6~10등급 (4천만원 이하) ·연소득 2.6천만원 이하	·5~10등급 (4천만원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6~10등급 (4천만원 이하) ·연소득 2.6천만원 이하
이자율	연 2~4.5%	연 9~12%	연 11~14%	연 8~12%
취급기관	미소금융재단	서민금융회사(지역신보 보증)	은행	은행(국민행복기금 보증)

채권 추심에 대한 규제와 단속 현실이 부채 악성화를 초래

- 응답자의 58.7%가 다중 채무자라는 조사 결과는 채무자들 상당수가 3개 이상 혹은 5개~10개 이상까지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로 추측이 가능
- 현행 채권 추심 가이드라인으로는 하루 3통까지 추심 전화를 용인, 10통에서 30통까지 추심 전화를 응대하게 되면서 일상생활의 장애가 발생

-
- 채권 추심의 불법성에 대해 채무자가 입증해야 하는 법 제도적 한계가 존재
 - 채권 추심원의 신분이 정규직이 아닌 위임직 개인 사업자로서 실적 압박에 따른 가혹한 채권 추심이 증가하는 상황

채권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신용회복기구

- 현재 채권단이 출자한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방어보다는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의 입장을 더 중시하는 형태의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운영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승인자 가운데 29.7%가 중도 탈락
- 월 소득의 30% 이상을 워크아웃 변제금액으로 내는 사람이 전체 승인자의 31%이고 이들의 중도탈락률이 44.1%
- 중도탈락자의 64.2%가 1년 이내에 탈락한다는 사실은 신용회복의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의 의미보다 가혹한 채권회수시스템이라는 것을 시사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의 제한으로 광범위한 채무 조정이 실패

- 2013년 2월까지의 연체자로 제한하면서 그 이후 연체자는 이용이 불가
- 6개월 이상 연체 지속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
- 연소득 484만원, 평균 연체기간이 5년인 채무자들이 주로 이용
- 월 소득이 40여만원인 채무자에게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적절한지는 논란. 파산 면책 등의 법적 채무 조정이 필요한 계층에게 무리한 부채 상환을 강요한다는 비판에 직면

금융복지 상담을 통한 자립의지의 동기부여가 중요

합리적인 채무 조정과 채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

- 금융과 복지를 구분하여 대상자에게 맞춤형 원스톱 상담의 공급이 필요
 - 저소득층은 서민금융상품으로 채무 조정이 거의 불가능. 워크아웃은 소득 지출의 균형을 맞춘 후 상환이 가능한 소득을 환산하는 과정. 저소득층은 이미 소득 지출 균형 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 조정이 아닌 파산 면책의 지원이 필요
 - 소득 지출 균형을 위해 일자리와 생계비 지원 등의 복지 수요의 파악이 필요.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으로 미래 채무 발생의 차단이 필요
- 상담을 통해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완화해 주는 조치가 필요
 - 과도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은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동기 저하를 초래
 - 연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과도한 죄책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을 유발
 - 죄책감과 추심의 고통으로 가족 해체 등의 2차 피해의 발생이 우려
 - 금융복지 상담사의 1:1 맞춤형 상담 관리로 동기를 부여하고 심리적 안정 등을 도모
- 소득 및 재무구조, 채무의 악성화 정도에 적합한 제도 이용을 안내
 - 채무 조정 절차가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다기보다 사회문제가 야기될 때마다 개별적이고 즉흥적으로 설계되어 이용하기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대부분. 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방문하여 문의하는 과정에서 모멸감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채무자들이 다수
 - 채무자들의 소득 및 재무상태 혹은 부채의 종류와 연체 여부 등에 따라 전문적인 상담사에 의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부채의 해소기간을 단축하고 자립 동기를 더 키울 것으로 기대
- 재무관리 상담 서비스로 자립을 지원

-
- 채무 조정과 더불어 소득 지출, 저축의 균형 잡힌 재무구조가 설계되어야 향후의 채무 발생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
 - 저축이 가능한 구조로 재무상태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자립 동기가 향상되므로 재무 관리 상담을 통해 반드시 저축이 가능한 재무구조로의 개선을 지원